

KIA 투타 선봉 새 외국인 선수들

# 로니 “강점인 빠른 공으로 타자 압박”

### 우승에 보탬되는 선수되고 싶어 가족 같은 동료들... 한국이 좋아

로니 윌리엄스의 유쾌한 KBO리그 도전기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의 로니 윌리엄스는 지난 1일 캠프 시작과 함께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먼저 팀에 합류해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로니는 “행복하다”며 한국 생활을 이야기했다. “한국이 좋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이 힘들었는데 한국생활이 좋다. 엄마랑 통화할 때 ‘미국에 안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웃음을 터트린 로니는 “한국 음식이 좋다. 비빔밥을 가장 좋아하고, 삼겹살, 고기 종류도 좋다”고 밝혔다.

태어나 처음 한국에서 눈도 만났다. 로니는 “처음 와서 훈련을 하는데 눈이 왔다. 눈이 오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다”며 “추운 것은 조금 힘들었는데 옷도 따뜻하게 입고 이제 적응이 됐다”고 말했다.

밝고 적극적으로 새 팀에 적응하면서 동료들도 어느새 가족이 됐다.

로니는 “동료들을 가족처럼 느낀다.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클럽하우스 들어갈 때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좋다”며 “필요할 때마다 코칭 스태프, 프런트가 도움을 준다. 양현종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선수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적응을 끝낸 로니는 새 리그에 맞춰 기술적인 부분을 가다듬고 있다. 미국에서 보다는 빠르게 훈련에 들어갔고, 지난 3일에 이어 6일 두 번째 불펜 피칭도 소화했다.

로니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쌓고 있다. 다른 한국선수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며 “포수들과 호흡을 맞춰 새로운 공에 적응하고 있다. 공인구가 다르다 보니 까 변화구 던질 때 스트라이크존을 많이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 몸 상태는 좋다. 오늘도 공을 더 던질 수 있을 만큼 몸 상태가 좋는데 무리하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짊어준 강점은 강한 직구다. 커브는 KBO 리그 장악을 위한 숙제다. 로니는 “KBO리그에서 성공하려면 더 강하고 빠르게 직구를 던져야 한다. 직구는 내 장점이고, 가장 자신 있는 구종은 체인지업이다. 체인지업은 적

응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세 번째 공으로 커브볼을 선택했는데 더 배워야 한다.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배우고 있다. 커브볼만 연마한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리그에 관한 공부도 착실하게 하고 있다. 로니는 “태블릿으로 지난해부터 KBO리그 경기를 많이 봤다. 연구 많이 했다”며 “내가 파악한 한국 타자들 약점은 빠른 직구다. 빠른 직구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 150km 이상의 빠른 공으로 압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그려냈다. 한국 타자들이 공격적인 스윙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공부했다”고 덧붙였다.

중간 계투로 활약했던 만큼 선발 보직에 대한 물음표가 있지만 로니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몸 릴리프도 많이 던졌고, 선발 정도 이닝은 던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일찍 캠프를 시작한 만큼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슬리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팀이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승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선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함평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새 외국인 투수 로니가 6일 함평 챌린저스에서 불펜피칭을 하고 있다.

# 소크라테스 “100% 쏟을 준비 완료”

### 새로운 리그에 대한 걱정 없어 나성범 간결한 스윙 인상 깊어

“환대에 감사하다.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는 시즌이 되면 좋겠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새로운 리그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1월 20일 한국에 입국했던 소크라테스는 자가격리 등을 거쳐 지난 5일 팀에 합류했다.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늦게 팀에 합류했지만, 이를 만에 적응은 끝났다. 한국의 2월 추위도 괜찮다.

소크라테스는 “미시간 서부 쪽과 라스베이거스 근교 등 이미 더 추운 곳에도 지내봤기 때문에 추위는 괜찮다”며 “팀에 합류하게 돼 기분이 좋다. 구단이 용품을 준비해줘서 집 안에서도 운동하면서 준비를 했다. 모든 선수가 친하게 대해줘서 빨리 적응했다. 가족같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개막에 앞서 KBO리그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가

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소크라테스는 ‘하루하루’를 목표로 될 생각이다.

그는 “수치를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며 “준비 잘 하고 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오래 같이 함께 하는 게 소원이다. 새로운 리그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무대에서 뛰면서 아시아 선수들과의 승부는 많이 해왔다. 박효준(피츠버그 파이리츠)과 함께 뛰면서 한국 문화·음식도 배웠다.

소크라테스는 “박효준과 같이 뛰었던 경험이 있는데 문화 음식에 대해 많이 물어봤다”며 “음식도 맛있다. 특히 한국 바베큐가 맛있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KIA는 외국인 선수 3명을 전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그만큼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과 팀 위기가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팀에서 가장 인상적인 타자는 나성범이다. 소크라테스는 “나성범 스윙이 인상 깊었다. 짧고 간결한 스윙이 좋아서 나중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A가 소크라테스에게 바라는 롤모델은 버나디나이다. 빠른 발을 앞세운 중장거리형 타자로 팀에 부족한 스피드와 화력을 더해줬으면 하는 게 KIA의 바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버나디나가 메츠에 있을 때 상대 해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는 선수다. 많은 타수에서 해봤기 때문에 감독님과 팀이 원하는 대로 역할을 하겠다”며 “나는 열심히 플레이하는 선수로 이야기할 수 있다. 100%를 쏟을 수 있는 선수다. 팀이 최대한 많은 경기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팬들이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환대를 해주셨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함평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가 6일 함평 챌린저스 실내 연습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 뼈아픈 서브 미스 2개... 2세트 고비 못 넘긴 페퍼스

### IBK기업은행에 0-3 패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연승 행진’ 중인 IBK기업은행의 기세에 압도됐다.

AI페퍼스는 6일 오후 4시 수원 화성종합청사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IBK기업은행과 맞붙어 패배했다. 세트스코어 0-3(18-25, 23-25, 17-25).

최근 3연승을 이룬 기업은행은 매서운 기세로 리브오픈-속공을 퍼부으며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한 반면, AI페퍼스는 한 발 느린 수비로 찢쩍대는 모습을 보였다.

1세트부터 김수지에게 2차례 블로킹 득점을 내주며 3-8로 고전한 AI페퍼스는 곧장 박시랑을 투

입, 높은 토스로 수비를 뚫어보려 했다. 하지만 엘리자벳의 공격은 연거푸 아웃라인을 넘어간 반면 산타나는 아웃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공격으로 잇따라 점수를 뺏아갔다.

흐름을 타지 못한 AI페퍼스는 볼 처리에만 급급한 상황을 반복, 18-25로 1세트를 내줬다.

AI페퍼스는 2세트에서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렸고, 최가은의 속공-블로킹을 비롯해 엘리자벳-이한비의 분전으로 10-10 균형을 맞췄다. 접전은 20-20까지 이어졌으나, 중요한 순간 최가은-엘리자벳의 서브가 잇따라 네트에 걸렸다. 이어 블로킹 빈틈을 노린 산타나의 리브오픈에 3연속 실점하면서 2세트도 패배했다.

3세트에서도 어려운 싸움이 이어졌다. 엘리자벳

의 강타는 표승주-김수지의 블로킹 벽에 쉽게 막혔다. 기업은행의 속공-이동공격에 블로킹이 무력화됐고, 산타나와 김희진의 리브오픈 공세에는 디그 반응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4-8로 불안하게 시작한 3세트, 쉽게 실점하고 어렵게 득점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17-23까지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산타나에게 2차례 연속 맥없이 실점하면서 3세트마저 허무하게 내줬다.

이날 엘리자벳은 17득점(공격 성공률 50%), 박경현-이한비는 각각 9득점(47.37%)·8득점(32%)을 올렸으나 기업은행 산타나가 24득점(67.65%)을 폭발하면서 힘이 빠졌다.

한편 이한비는 이날 역대최고 공격득점 500점을 돌파(87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우상혁 또 한국신기록 뛰어넘었다

### 높이뛰기 실내대회서 2m36 올해 첫 출전 세계대회 우승

우상혁이 2022년 처음 치른 경기에서 높이뛰기 남자부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우상혁은 6일(한국시간)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인도어(실내) 투어,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해 2m36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8월 1일 2020 도쿄올림픽에 결선에서 자신이 세운 2m35를 6개월 만에 1cm 높은 신기록이다.

세계육상연맹은 실내, 실외 경기 기록을 따로 집계한다. 하지만, 대한육상연맹은 도약경기의 ‘실내, 실외 기록’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동안 실

내경기에 출전한 한국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내경기 기록이 적정 수준으로 축적되기 전까지는 실내, 실외 경기 기록을 통합해 집계한다.

높이뛰기는 비나 눈이 오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 로 실내, 실외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이기도 하다.

우상혁은 두 번째로 한국 기록을 세웠다. 그는 도쿄올림픽 높이뛰기 남자부 결선에서 2m35를 뛰어, 이진택이 1994년 작성한 종전 한국기록 2m34를 27년 만에 경신했다.

우상혁은 당시 결선에 출전한 13명 중 세계랭킹(30위)과 개인 최고 기록(2m31)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2m35를 뛰어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해작: 도깨비 깃발
2관	해작: 도깨비 깃발,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3관	김메이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4관	김메이커
5관	김메이커
6관	해작: 도깨비 깃발
9관	해작: 도깨비 깃발
7관	해작: 도깨비 깃발, 썬2계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8관	해작: 도깨비 깃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경관의 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GAC기획공연 포커스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타임머신**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1회 정기연주회

일시 : 2022.02.18.(금)-19.(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